



즉시 배포용: 2024년 4월 2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회계연도 2025 예산 협약의 일부로 뉴욕 시민의 건강 개선을 위한
중요 단계 발표**

*역사적인 370억 달러 Medicaid 투자, 헬스케어 안전망 지원 및 헬스케어 제공 시스템
혁신을 위해*

뉴욕이 임신자들을 위한 유급 산전 휴가제 마련하는 국내 첫 주가 된다

필수 플랜, 기타 인증 건강 플랜에서 뉴욕 시민을 위한 임신 관련 혜택에 대해 본인 부담
의료 비용 제거

건강 보험 플랜에서 모든 뉴욕 시민을 위한 인슐린에 대한 코페이를 제거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수입이 연방 공평도 400% 미만인 환자에 대해 병원이 소송하는 것을 금지하여 의료 부채
근절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회계연도 2025 행정 예산의 일부로 뉴욕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당한 투자를 발표했으며, 여기엔 Medicaid 및 의료 케어를
필요로 하는 임신맘, 당뇨병 및 저소득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록적인
투자가 포함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병원 진료에 필요한 누구라도 부과되는 비용이나
놓치게 될 근무 시간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임신맘을 지원하는 것부터 인슐린 비용을
줄이는 것까지, 저희는 뉴욕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병원 진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을 위한 중대 Medicaid 투자

Hochul 주지사의 회계연도 2025 예산은 뉴욕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록적인
기금을 제공하며, Medicaid 프로그램 또한 지속 가능한 장기 재무 관리를 설정합니다.
역사적인 370억 달러의 Medicaid 투자가 주의 헬스케어 안전망 지원 노력을 유지하고

헬스케어 제공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오며, 동시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인력 지원에 과감히 투자합니다. 예산에는 또한 주의 건강 형평성 촉진을 위해 연방 및 주 기금에 75억 달러를 투자하는, 주의 최근 승인된 **Medicaid 1115 Waiver** 개정안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산모 건강 개선

산전 케어를 위한 별도의 병가 은행을 의무화함으로써, 뉴욕은 고용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도 임산부가 환자와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를 받도록 하여, 타 주에 비해 앞서나갈 것입니다. 근로자는 이제 산전 케어에 대해 기존의 병가에 더해 추가로 20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산전 헬스케어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향상과 깊은 연관을 지닌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산전 의료 방문에 대한 접근성을 지닌 임산부가 분만 시 사망 확률이 더 적으며 신생아가 건강할 확률이 더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산전 휴가 제공은 새로운 부모를 지원하고 산모 건강의 결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Hochul** 주지사의 이전 조치에 기초하고 있으며, 여기엔 주 인력의 80% 이상에게 12주의 유급 육아 휴직 혜택을 제공하고 **Medicaid** 및 **Child Health Plus** 가입자에게 임신 종료 후 산후 보장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회계연도 2025 예산에는 필수 플랜 및 인증 건강 플랜 가입자를 위해 불필요한 C-섹션을 줄이고, 산전 및 산후 방문과 같이 특정 임신 관련 지출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포함됩니다.

인슐린에 대한 코페이 제거

Hochul 주지사는 주 통제 건강 보험 플랜에서 모든 뉴욕 시민의 인슐린 비용 부담을 제거하는 데 서명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국내의 인슐린 비용 부담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금지를 제정하여, 뉴욕 시민에게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고 이 구멍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게 됩니다. 158만 명의 뉴욕 주민이 당뇨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안으로 2025년에만 뉴욕 주민의 비용 약 1,400만 달러를 절감하게 됩니다.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에 따르면, 당뇨 환자들의 의료비용은 비만 환자에 비해 2.3배 높으며, 높은 진단율을 보이는 비백인 커뮤니티에서 높은 비용의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의료 채무 근절

회계연도 2025 예산에는 수입이 연방 궁핍도 400% 미만 또는 4인 가족 기준 12만 달러 미만인 환자에 대한 소송 제기를 금지함으로써, 의료 부채 소송으로부터 저소득 뉴욕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포함됩니다. 법안은 또한 저소득 뉴욕 시민을 위한 병원 재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의료 채무에 대한 월 지급금 및 이자 규모를

제한하며, 재무 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타 보호책을 적용하고, 뉴욕 시민에 대한 의료 채무의 유해한 효과를 완화합니다.

뉴욕 주민 700,000명 이상이 의료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의료 채무를 가진 사람들은 필수적인 진료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식료품과 난방, 임대료 등 보건에 필수적인 요소를 절약해야 한다는 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채무액이 클 경우 많은 개인과 가족의 재정 안정성이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보건 평등과 기타 보건 관련 상태를 개선하려는 뉴욕주의 노력을 방해합니다.

SUNY Downstate에 투자

예산에는 SUNY Downstate를 위한 자본 기금 3억 달러 및 운영비 최대 1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이는 또한 현대적이고 재정적으로 탄탄한 SUNY Downstate를 위한 안정적인 옵션을 평가하고 제공하기 위한 자문 위원회를 마련합니다; 자문 위원회는 계획 수립 중 주의 자본 기금 및 확보된 연방 기금 중 250%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